

### 장항리 東오층석탑 방치 '신라의 향기' 복원 마당

경주시의 보문단지를 지나 덕동호의 고분포복한 산길을 끼고 돌면 활동굴. 그 곳을 지나면 기림사, 갑은사지, 갑포 가는 길로 이어진다. 기림사 가기 전에는 주유소가 있는데 그 곳을 우회전하여 3km쯤 가면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절터가 나온다. 그 절터에는 국보 236호로 지정된 서오층석탑이 있다.



탑신 윗부분의 부서진 모습이 모호하게 세월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고, 천년의 숨결이 코끝에 와 닿는 것 같았다. 동탑의 육중한 면에서도 날렵한 모습과 조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장항리사지의 서오층석탑과 동오층석탑은 천년을 이어 온 신라의 향기이다. 그런데 동탑의 기단은 (사진)과 같이 주위에 방치돼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길 기원한다. 김홍성(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 독자 마당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cum  
·하이텔 : 34713

### 고달사지 무분별한 탁본 국문문화재 훼손에 충격

며칠전 고달사지에 갔다. 옛 풍경은 거의 사라진 채 부도, 석조 대좌 등 석조물만이 남아 그 흔적을 말해 주고 있었다. 절터는 논과 밭으로 바뀌었고, 변변한 보호시설물 하나 없었다. 또 국보로 지정된 고달사지 부도의 사천왕상에 검은 먹물이 더덕더덕 찍혀 있는가 하면 옥계석 바로 밑의 비천상은 아예 시커먼 먹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분명 탁본을 한 흔적이었다. 탁본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옛 문화를 진정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귀중한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연희(서울 강동구 성내1동)

### BBS사태 8개월째 공전 조속한 진상규명 절실

불교방송 애청자의 한사람이다. 한문 두문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불교전용방송으로 개국했던 불교방송, 속세의 추악한 욕심에 휩싸여 탐욕으로 얼룩져버린데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불교방송 직원들이 공공행령으로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등 8개월여에 걸친 검찰 수사에도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와중에 또 이사진장비의 공공유용사건이 터져 나왔다.



도대체 불교방송 관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태수습 의지가 있거나 한 것인지 궁금하다. 검찰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사태수습을 바라는 것은 불교방송을 사랑하는 모든 불자들의 마음일 것이다. 김경희(서울 노원구 상계동)

### 귀성고속도 '쓰레기 몸살' 차창 밖 투기행위 말아야

고향을 향한 사람들로 고속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할 만큼 차들로 빼곡하고, 오고가며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한때 불자들의 무분별한 방생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했던 기억을 상기시켜 불자들은 무심결에 차창밖으로 던져버리는 쓰레기로 우리 산천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김숙자(환경모임 아름다운교회원)

### 웬 수도총림 덕숭사(?)

수도총림 덕숭사(?)라니. 추석을 며칠 앞두고 성묘를 다녀 온 우리 가족은 예산역에서 다소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당시 대합실에는 그 고장의 명소를 소개하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수덕사를 소개하는 사진 설명에 '수도총림 덕숭사'라고 써져 있었던 것이다. 이는 '덕숭총림 수덕산사'의 오자. 역무원들의 무지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를 짐작케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고광(서울 강남구 입구정동)

### 병영에서 온 편지

### 군법당에 불교만화 법어집등 절실

저는 강원도에서 군중병 소임을 보고 있는 문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군법당에는 장병들이 불 불교도서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있어도 초심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만 있습니다. 이에 저는 불교만화를 통해 불교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교계의 군포교는 타종교에 비해 노력이 미약한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당에서 주는 초코파 이·떡·과자가 때때로 집이 그리운 장병들에게 위로가 되긴 합니다만 불서 한권을 통해 배우는 지혜야말로 더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요즘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고학력자가 많고, 제대 후 진로를 위해 책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장병들은 법사님들의 좋은 말씀과 더불어 불교관련 서적에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수(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2리 사서함1호 천물사)

### 제언

### "북방동포에 불심 심자"

조계종은 최근 국제포교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증생구제를 선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종적 지역적 언어적 편견에 따라 포교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무릇 모든 일에는 방법이 따르며, 그 방법은 의도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다. 따라서 때로는 우선 순위는 해외동포들에 대한 포교가 국제포교의 일차적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외동포들은 그 지역에 오래 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서 그 지역 문화를 비교적 잘 이해한다. 자신이 경험한 한민족 문화와 어떻게 상충하고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를 잘 안다. 또 이들은 현지 타민족보다 불교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강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해외동포는 국제포교의 교두보일 수밖에 없다. 이를 여를 필자는 중국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우리 민족의 집단 거주지를 근한담에 걸쳐 취재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중 무려 45%에 이르는 2백30만명이 이들을 지역에 살고 있다. 이들은 국권상실기에 이란처럼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난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이다. 동포들이 사는 지역마다 한 국기독교는 거미줄처럼 선교망을 구축해 놓았다. 기실명에서 백여명에 이르는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오죽하면 중국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 선교사가 적발되면 2년형에 처하겠다고 발표했을까. 이런 판국에 한국불교의 진출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얼마아타의 박일 교수(전 김 일성대학 부총장)는 "왜 한국 정부는 기독교만 장려하고 있는가, 왜 민족종교인 불교는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 모교수는 얼마아타에 세운 원불교교당 개원식에 참석하여 강연했다고 현지 고려일보가 보도하고 있었다. 또 중국 선양의 동방조선민족전통문화연구소 김보민 소장은 "장사꾼만 중국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문화가 더불어 진출해야 한다. 그것만이 해외동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현지 당국자들은 "기독교와는 달리 불교는 현지의 소수민족들이 믿고 있는 종교라서 막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럼 주장하지만, 국제포교의 단기적 목표는 해외동포 포교야 한다. 그것도 독립국가 연합과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그 일차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민족종교로서의 불교를 전파함으로써 민족정성을 찾아 주고, 더불어가 이러한 불교문화의 수열이 한국경제의 출로를 열어 주는 데까지 이어진다면 더 바랄 나위없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이정 (경향신문 뉴미디어센터장직)

## 만화 100년

### 도인의 눈

옛날 어떤 사람이 산에 들어가 다섯가지의 신물을 얻어 天眼으로 땅 속의 온갖것과 갖가지 보배를 환히 볼 수 있었는데 이 소문은 왕에게 까지 전해졌다.

그런 도인이 이 나라에 있다니 정말 기쁜 일이 로구나

그의 힘을 빌어 땅 속의 보물을 찾아 짐의 창고에 가득 채울 수 있겠구나

너는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구나

그 도인을 이 나라에 머물게 하려던 것은 땅 속의 모든 것을 보게 하려 함인데

눈을 뺏아 버렸으니 이제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도 이와같이 남이 두타의 고행을 하기 위해 부정관을 두는 것을 보고

역지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갖가지 공양을 한다던

그의 선법은 허물어지고 깨달음의 결과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마치 저 어리석은 신하가 도인의 눈을 뺏아 버리는 것과 같이

##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 행으로 이끄는 신명의 길잡이

### 현대 불교

전국 어디에서나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 취재, 구독, 광고, 사업 ■  
가까운 현대불교신문 지사·지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부산지사    | 051-634-5114  |
| 광주지사    | 062-375-9986  |
| 대구지사    | 053-768-8008  |
| 목포지국    | 0631-281-2534 |
| 속초지사    | 0392-636-3923 |
| 북인천지국   | 032-541-8770  |
| 청주지사    | 0415-63-3873  |
| 강릉지사    | 0391-653-1518 |
| 인천지사    | 032-461-3461  |
| 춘천지사    | 0361-241-0633 |
| 대전지사    | 042-625-1080  |
| 안산지사    | 0345-411-4580 |
| 진주지사    | 0591-747-0106 |
| 마산·창원지사 | 0551-84-0735  |
| 공주지국    | 0416-55-0020  |
| 고성지국    | 0556-72-0078  |
| 예산지국    | 0458-33-5097  |
| 포항지국    | 0562-252-7749 |
| 고양지국    | 0344-912-2323 |
| 영주지국    | 0572-34-3429  |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24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선생)
  -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범고)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식등
  -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음, 신중작법, 지장경,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법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대계작법(나비춤)등
  - 의식전문 법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7년 9월 1일 ~ 10월 6일
- 개강일시 : 1997년 10월 6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심장법사과정 ○ 해외포교과정

\* 본원은 초중파 교육과정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 효성석재공사

귀의 상보하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석조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합정

### 주요불사실적

- 남한산성 석불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양 삼성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상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臨山법회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유리 227번지  
전화: 전시장 (0357)542-1527 야간 (0351)874-4685  
공장 (0357)542-1528